

2016 4월-6월 vol.13  
**Paminy**



· HELLO ·  
*Spring*  
HELLO PACOM



소나기마을 황순원 문학관

**응답하라 팩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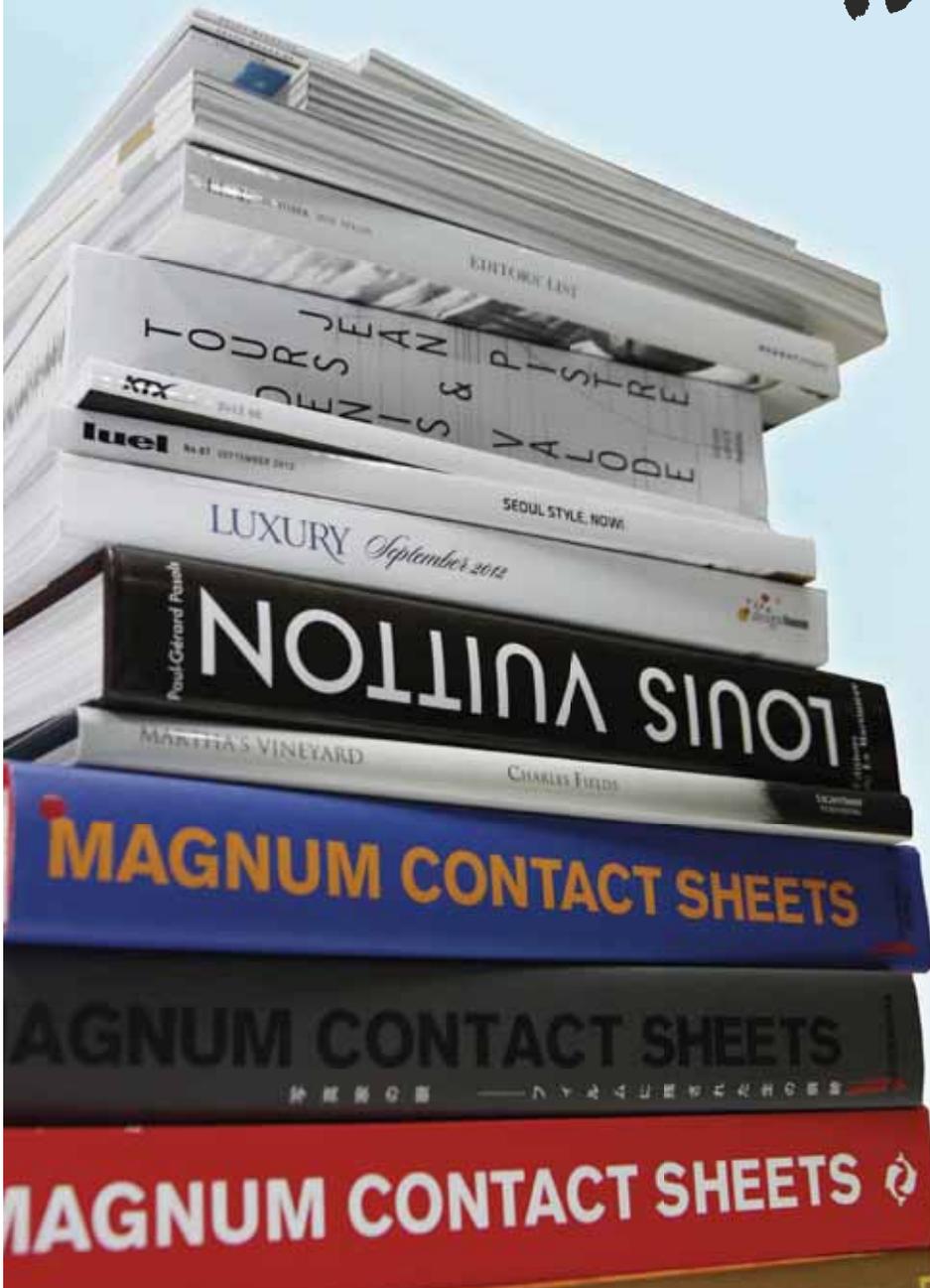
가족의 편지

힐링로드 - 도쿄

#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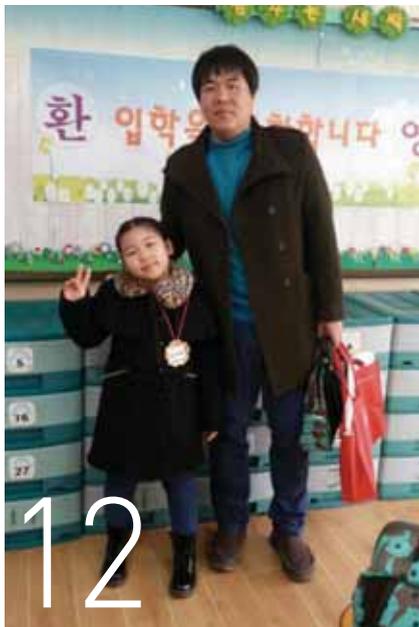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mate**

**BOOKMATE**



vol.13  
2016 April, May, June

# CONTENTS

Pacific Family  
**Pamirly**

02	문학기행	소나기마을 황순원 문학관
03	라이프	춘곤증의 모든것
04	이모저모	응답하라 팩کم
06	공감	민들레 흠씨 하나, 섬에 내린 이유
07	라이프	봄 레시피 - 참나물 무침
08	힐링로드	도쿄 여행기
10	독서평	어떤 하루
11	맛집소개	찾아라! 맛있는 팩کم
12	가족의 편지	해외영업부 - 민상준 과장
13	영화평	말할 수 없는 비밀
14	이모저모	팩کم 구석구석 1탄
16	부서소개	해외영업부 도전팀
17	패밀리뉴스	올해의 기자상
18	찰칵소리	
20	팩کم뉴스	



#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관을 가다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 마을 길 24 | 031-773-2299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나기” 이듯이 소나기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다. 짧은 단편 소설 하나가 오랫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대신하여 사랑받으면서 결국은 국민 소설이 된 것이다.

소나기의 작가, 황고집의 후손... 황순원의 고결한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양평군과 경희대학교가 힘을 모아 조성한 테마파크가 두물머리에 있다.



가까이 있어서 찾아가 보기 쉬우며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 소나기의 배경을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해 놓은 공간으로 일상의 번거로움을 잊고 동심의 세계로 잠시 빠져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건물 내부로 들어 가면 황순원의 유품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이 분의 삶과 역사가 한 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잘 전시가 되어져 있다.

영화 상영관에는 소나기가 나오고 애니메이션 상영관도 있으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쉴수 있는 문학 카페도 있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야외에 징검다리, 개울, 오솔길등 소나기의 배경을 재현한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도 같이 즐기면 금상첨화가 될듯 하다.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어서 부담없이 하루 다녀오기에 좋은 곳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읽고나면 짠한 이야기... 어린 소녀가 남긴 유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씨 죽기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춘곤증 봄의 불청객의 모든 것!

매년 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 그 이름은 바로 춘곤증입니다. 날씨가 풀리면 좋으려만, 우리의 눈도 풀리고 몸도 나른한 것이 올해도 어김없이 춘곤증이 찾아온 듯 합니다. 밀도 끝도 없이 우리를 나른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춘곤증. 도대체 이 춘곤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이 불청객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오늘은 이런 춘곤증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춘곤증**이란 무엇일까요?

춘곤증이란, 갑작스러운 계절의 변화에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봄철 피로증후군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추위에 적응했던 우리 몸은 수면 패턴과 일상 생활 패턴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해가 길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동시에 활동량은 더 늘어나게 되지요. 대표적인 춘곤증의 증상으로는 졸음증, 식욕 부진,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정말 고역 중에 고역이 따로 없지요. 일과 중에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데, 아침 지나가시는 부장님과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입맛도 없는데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되고 더 부룩하다면? 이런 분들을 위해 춘곤증을 이겨낼 세 가지 팁을 엄선해 보았습니다.

**STEP 1!**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으면 오전 중에도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점심에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춘곤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나물과 과일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냉이나 달래 같은 향긋한 봄나물, 그리고 상큼한 딸기 등이 지친 몸의 활기를 되찾고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일 듯 하네요.

**STEP 2!**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은 지친 몸을 깨워줘요! 일과 시간에도 간편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몸의 구석구석을 짚짚 스트레칭해서 지긋지긋한 피로를 쫓아보세요. 또, 졸음이 온다고 마냥 늘어져있기보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를 벗어나 가볍게 산책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산책을 하며 찌는 일정량의 햇볕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네요.

**STEP 3!** 최후의 보루, 낮잠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잠시라도 눈을 붙여 보세요. 낮에 잠자는 토막잠 만큼 달콤한 것이 또 있을까요? 꼭 자고 일어나면 온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하지만 과한 낮잠은 오히려 수면 사이클을 해쳐서 춘곤증에 더욱 해롭다고 합니다. 이

상적인 낮잠의 시간은 더도 덜도 말고 15분! 15분의 꿀잠으로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요약하자면, 그저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고, 가볍게라도 운동 꼭 하시고, 꼭 주무시라는 거예요. 잠시 스쳐가는 춘곤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장기적인 과로가 쌓이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P**이연지



# 응답하라 팩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2006 ~ 2012년도,  
그때 그시절 팩캠 패밀리를 만나보자

2006 팩캠 가족



2008 워크샵



2007 족구대회



2008 족구대회



2008 9주년 행사



2008 소방훈련



2009 10주년 야유회



2009 생일행사



2009 칠갑산 등산



2009 안산 바베큐파티



2009 안산 회의



2010 청계산 등산



2011 워크샵



2011 마니산 등산



2012 소요산 등산



2012 팩캠AAP 워크샵



P 박미선

# 민들레 흩씨 하나, 섬에 내린 이유

네가 아니라도  
봄날을 알려줄  
바람과 공기와 햇살과  
온갖 동 식물이  
즐비한데

연약한 날개로  
왜 이렇게 바다 멀리  
작은 섬까지  
날아 왔는지  
하필이면 외로운 섬 언덕  
바위 틈에 내렸는지

노랑게 혹은 하얗게  
피어야 할 꽃잎이  
세상의 모든 민들레와 달리  
이미 쪽빛 바다를 닮아  
비취색으로 물들어 가는지

바람을 사랑하여  
따라온 이 곳에  
그 바람 아직 세차게  
부는 이 곳에 내린 이유  
처음 온 그 곳으로  
돌아 가기 위함이다

**P** 황철원

# 봄 · 봄 · 봄 이 왔 어 요 !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겨울이 어느덧 물러가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봄과 어울리는 초~간단 요리와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 참나물 무침

- 구입요령 : 짙은 초록색으로 싱싱하며 벌레 먹거나 시든 잎이 없는 것으로 고른다.
- 유사재료 : 시금치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참나물은 특유의 향이 있는 산채 나물로서 시금치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다.)
- 보관온도 : 1~5℃
- 보관일 : 3일
- 보관법 : 고온에서 장시간 보관 시에는 영양성분이 파괴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조리한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 뒤 신선실에 넣어두면 3일은 보관할 수 있다.
- 손질법 : 시든 잎과 뿌리를 다듬은 후 끓은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쳐서 사용한다.
- 산지특성 및 기타정보 : 한국이 원산지이며 잎을 먹는다.  
재배는 노지, 하우스 재배가 있다.
- 효능 : 비만방지, 안구건조증 예방 (열량이 낮아 비만 방지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높아 안구건조증 예방효과가 있다.)

출처: 요리백과 쿡쿡TV

### ■ 요리 및 시식평

대단히 간단한 반찬이라 만드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나물을 씻기만 하면 끝나는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리' 라고 하기도 거창한 정도네요. 노력에 비해 맛은 너무 좋아 나물만 반찬으로 삼아 밥을 한 그릇 딱딱했습니다. **윤지은**



1. 싱싱한 참나물을 찬물에 깨끗이 씻는다. 이때 너무 억센 줄기나 시든 잎은 잘 골라 떼어준다.



2. 참나물을 데쳐줄 때 길긴 줄기 부분부터 먼저 넣어준다.



3. 30초 후에 잎까지 다 넣어주고, 솜만 죽이는 정도로만 한번 휘 저어 건져준다.



4. 바로 찬물에 헹궈준다.



5. 간장 1t, 소금 1t, 참기름 1t, 들깨 조금을 넣어 무쳐준다. 들깨는 으깨듯이 부시면서 넣어주면 고소함이 살아난다.



6. 먹기 좋게 그릇에 담아 내면 완성.

# 東京 10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마치 어디로든 떠나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훌쩍 도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행의 시작, 도쿄 만에 있는 대규모 인공섬인 오다이바로 향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출발했더니, 긴장감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다. 피로를 풀기 위해 노천탕에서 족욕도 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오오에도 온천으로 향했다. 에도시대 건물을 재현한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니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만화 캐릭터들이 눈에 띄었다. 온천에서 일본의 기모노 일종인 유카타를 무료

로 대여 해주는데, 10가지 정도의 디자인에서 고를 수가 있다. 처음 입는 유카타는 어려운 듯싶었으나, 막상 입고 보니 편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어 일본에 온 것을 실감케 해주었다. 온천 내부로 들어서니 어두운 실내에 형형색색의 등과 빛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에도시대의 거리를 재현하고 있었다. 먹거리 볼거리 다양한 이곳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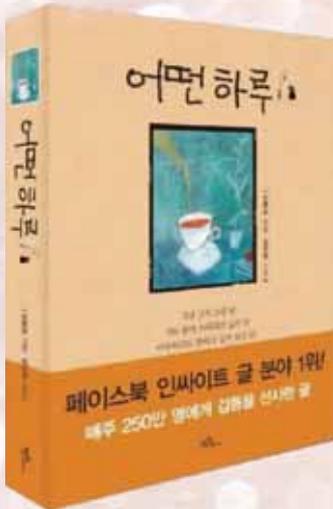
었다. 서둘러 오다이바의 야경 명소인 레인보우 브릿지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담한 자유의 여신상과 레인보우 브릿지, 그리고 뒷편 건물들의 불빛들이 점점 선명해져 로맨틱한 야경을 선사해줬다.

유~후 아침이 밝았다. 짧은 여행 이어서 인지 마음이 바빠다 바빠!! 미로 같은 도쿄 지하철을 타고 아사쿠사역에 도착했다. 도쿄 여행으로 손꼽히는 곳이라 역내로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 행렬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거대한 가미나리문을 만날 수 있다. 빨간색 가미나리 문을 통과하면 양 옆으로 상점들이 길게 늘어져 있다. 관광 명소답게 기념품 샵과 주전부리 샵을 먹거리들이 가득하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먹거리에 영혼이 팔려 센소지에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큰 사찰로서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찰 마당에는 커다란 향이 피워져 있는데, 연기를 쐬면 액운이 사라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향을 빙 돌려싸여 연기를 쐬고 있었다. 또한 마당 한 켠에는 복점을 치는 곳이 있었는데, 100엔을 넣고 2016년 운세를 재미로 쳐 보았다. 사찰에는 기모노를 곱게 차려 입고 방문한 일본인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지 이곳 사찰이 더욱 일본스럽게 느껴졌다. 사찰을 빠져 나와 일본의 패션 거리 하라주쿠로 향했다. 쇼핑 나온 일본 젊은이들로 북적북적 활기찬 거리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신촌이나 이대 앞 거리 풍경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하라주쿠에서 유명한 크레페를 한 손에 들고 시부야까지 걷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표 쇼핑 거리인 만큼 일본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들이 쉽게 눈에 띄었고 개성 넘치는 디자이너 샵들이 있어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다. 드디어, 텔레비전에서 보던 시부야의 횡단보도에 다다랐다. 많은 인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그 행렬에 맞춰 사방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보았다. 시부야의 스타벅스에서 진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려 올라갔지만, 역시 전세계 매출 1위다운 명당답게 한자리 차지하기는 실패하였다.



일본 여행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기 위해 무료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도청으로 향했다. 도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야경 명소로 유명하다. 안전을 위해 1층에서 가방검사를 한 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 45층에 도착했다. 반짝반짝 불빛들이 빛나는 도쿄 시내 건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야경을 감상하기 좋았다. 뻥뻥한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도쿄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어 이번 여행도 행복했다. **주선영**

## BOOK REVIEW



# 어떤 하루

신준모

에세이를 읽을 땐 항상 작가의 나이와 프로필을 확인하게 된다. 그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낸 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쓴 신준모 작가는 일찍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시작한 사업에 성공해 역대 연봉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뼈아픈 실패를 겪고 SNS에 일상의 소중함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그는 페이스북상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손꼽히며 마음도 성형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강연하고 있다.

이 책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긴 글이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도 많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서동요작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서동요는 무왕이 어릴 때 성 안의 아이들에게 마를 주며 공주와 자신이 결혼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시켰고, 결국 그 노래가 널리 퍼져 진짜 공주와 결혼하게 됐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작가는 무언가를 계획했으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때까지 뭐 할꺼야!" 라고 여기저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받게 될 창피함과 쓴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언가 억지스러우면서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이다.

살면서 한 번씩 되새기며 마음을 달랠만한 글귀, 중간중간 삽입된 아기자기한 그림들 덕분에 가볍게 읽으며 잔잔한 공감도 느낄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 박효정](#)

## 팩컴가족과 나누고 싶은 문구

당당하게 나의 꿈과 계획을 말하는 서동요 작전, 어떤가요?  
 자, 준비했다면 일단 해보세요.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그럼, 우리 실행의 천재가 돼서 만납시다.

# 찾아라! 맛있는 팩컴

봄철, 몸은 나른하고 입맛은 없고... 이런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잘 챙겨먹어야 하는 것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 오늘도 역시 발로 뛰어 맛본 3군데의 맛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 첫번째, 채선당

흔한 프랜차이즈지만 맛있어서 그냥 소개합니다. 샤브샤브 프랜차이즈의 대명사 채선당입니다. 우선 샤브샤브의 생명인 육수가 준비되고, 차례로 싱싱한 야채와 먹음직스러운 고기가 등장합니다. 겁 없이 입에 넣었다가는 입안을 흘랑 데고 마는 바삭한 군만두도 빠질 수 없지요. 야채와 고기를 저마다의 기호에 맞춰 적당히 익혀 먹어 치우는 사이 국물은 점점 간간하게 좋아 들고요, 칼국수에 죽까지 싹씩 비우면 배가 불러 숨을 쉬기 힘들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환상의 코스입니다. 여름철에 가면 차츰 땀을 더 흘리고 오기 십상이니, 이 봄이 지나기 전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T. 031-455-7210**



## 두번째, 이정래 정육식당

다음 메뉴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고기입니다!!! 때깔이 곱기도 곱네요. 소고기는 꼭 미디움레어로 익혀 소금장에만 살짝 찍어먹는 것이 가장 소고기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정래 정육식당의 별미는 소고기초밥인데요, 이렇게 10피스에 5,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을 뽐내고 있습니다. 마늘 기름장을 듬뿍 찍어먹으면 고소하고 맵싸한 것이 어드레 다음 접시를 주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향간에 돼지고기도 엄청 맛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재 방문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르르 녹는 고기 맛도 맛있지만, 또 하나의 메리트는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정육식당인 만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T. 031-348 3456**

## 세번째, 투데이 밥이랑 술이랑

가게의 정식 명칭은 생소하기 그지 없네요. 60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눈에 익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요 근래 팩컴 아저씨들 사이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일명 '봉다리집' 입니다. 외관이나 인테리어는 다소 허름한 인상을 주지만, 맛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날 과메기와 갑오징어 숙회, 그리고 아귀찜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맛이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묘사하자면,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맛! 게다가 양도 제법 푸짐해서 술 안주로도 좋지만 식사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게 이름 그대로, "밥이랑 술이랑" 이네요. 또 하나, 봉다리집만의 특별한 점은 바로 원하는 메뉴는 모두 만들어 주신다는 점! 물론 미리 전화해서 주문을 해줘야 사장님께서 싱싱한 재료로 장을 봐오신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T. 031-452-8679** **P** 이연지



# 가족의 편지

해외영업부 창조팀 | 민상준 과장

## 아빠에게

아빠!  
 지금쯤 회사에서 일하고 있겠죠?  
 회사 다녀보냐 힘들죠? 제가 안다해드릴게요  
 항상 제가 해달라는 것들 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랑 놀아드리고 싶어요  
 아빠 놀아드리고 싶어요  
 아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빠는 저의 오아시스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  
 아빠가 심심할때 제가 놀아 드릴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언제나 귀여운 주희가



MOVIE REVIEW



## 말할 수 없는 비밀

뻘한듯 뻘하지않은 영화즐거리

멜로/로맨스, 판타지 | 2008.01.10 | 101분 | 대만 | 12세 관람가

단강예술고등학교로 전학 온 상륜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상륜은 전학 온 첫날 우연히 듣게 된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샤오위를 만나게 된다. 비밀이 많은 샤오위와 상륜은 사랑에 빠진다. 한편, 학교 음악실이 졸업식 날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샤오위는 상륜과 만난 날 연주하였던 피아노 곡을 상륜에게 알려주면서 빠르게 연주하면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이후 상륜은 아버지를 통해 샤오위와 관련된 일을 듣게 되고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영화 초반은 남,여주인공이 예쁜 풍경을 배경으로 함께 비를 맞거나 자전거를 타며 사랑을 키워가는 멜로 장면이 많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판타지적 요소들이 휘몰아친다. 특히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여주인공을 그리워하던 남자주인공의 책상에 저절로 흰 글씨가 줄줄이 써지는 장면은 실

소가 나올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여주인공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들과 흥미진진해져가는 스토리덕분에 어느새 그런 뜬금없는 판타지적 설정들을 납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술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손꼽히는 명장면 대부분이 피아노 연주 장면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피아노 배틀 장면! 잘생긴 두 남학생이 손이 안보일 정도로 열정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은.. 보는이의 심장 박동수를 마구마구 증가시킨다. 그런데 더 매력적인 건 이 영화 속의 모든 피아노 장면을 배우들이 직접 연주했다는 것.

이 영화는 판타지, 스릴러, 미스터리, 멜로의 요소가 마구 뒤섞여있어 다 보고 나면 그 정체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진 스토리 라인과 영화 중간중간 삽입돼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피아노 연주들은 이 영화를 충분히 볼만한 가치있는 영화로 만든다. 음악, 사랑 그리고 판타지까지 담겨있는, 누군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랑이야기를 몰래 훑쳐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뭘지 모르게 끝이 나도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 ☆

**P** 박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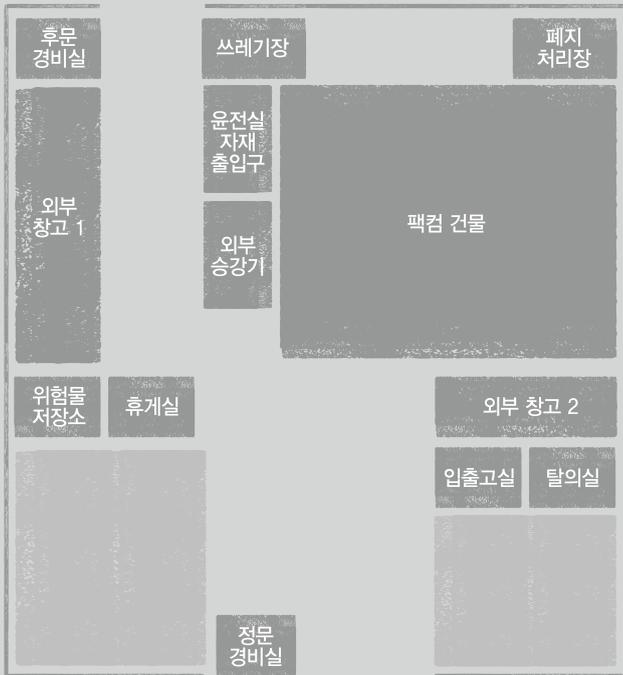


# 팩컴 구석구석 1탄!

팩컴 건물에 궁금한 곳이 있으셨나요? 건물 구석구석을 함께 살펴보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 박미선

## 01. 건물 외부



정문 / 경비실



주차장



후문 경비실



휴게실(흡연/금연), 위험물 저장소



쓰레기장



폐지 처리장



외부 창고 2



외부 승강기



운전실 자재출입구 (비상탈출로)



### 02. 지하 1F



보일러실 / 지층 입구



매엽기



품질무사고 현황판

### 03. 1F



1층 고객실



1층 공장 입구



재단기



톰스 2호기



무선1호기



윤전



접저



접저



정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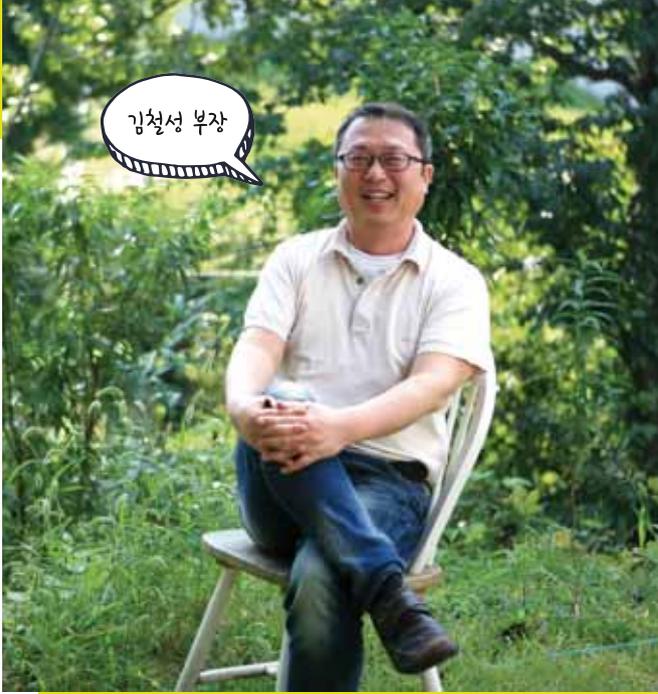


# CHALLENGE

## 해외영업부 #도전팀

해외영업부

팩컴의 도전팀에서 '도전'을 빼다면 남는 것이 없다. 이번 호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부서, 해외영업부 도전팀을 소개한다.



김철성 부장

도전팀의 리더, 굵은 목소리의 김철성 부장은 언제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 저녁에 회식에 갈 때에도 어김없이 김철성 부장은 노트북 가방과 함께이다. 왜 그렇게 노트북 가방과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지 기자는 참 궁금했다. 알고 보니, 전세계에서 날아들어오는 견적 문의를

365일 24시간 바로 응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런 영업 마인드로 김철성 부장은 항상 해외 부서 직원 중에 가장 일찍 출근하여 밤 사이 날아온 해외 바이어들의 답변을 받 빠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라, 책상 주변을 가보면 모든 물품들이 자칫하면 베일 정도로 날카롭게 각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혜옥 차장

도전팀의 소프라노 한혜옥 차장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왕복 18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환경보호가 이다. 처음에는 자녀의 자전거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작은 체구에 맞는 날렵하고 가속도가 잘 붙는 자전거로 교체하여 출퇴근길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한다. 명절이면 동해의 시냇에 다녀와, 구수한 명품 오징어를 직원들에게 돌리는 훈훈한 차장님이기도 하다.



김진아 과장



군포의 강남스타일, 정열의 RED스포츠킴을 타고 다니는 김진아 과장은, 팀 이름에 걸맞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초보운전시절 어

기저기서 도움을 받아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였지만,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지금은 운전 베테랑이 되었다. 낮에는 베테랑 같은 매너를 갖추고 업무를 처리하며, 저녁에는 헬스로 건강을 챙기는 군포의 강남스타일 김진아 과장의 미래의 도전도 무척이나 기대된다.



오지혁 과장

제주도에서 바다를 건너 부산을 찍고, 경기도 군포까지 상경하여 출세한 오지혁 과장은 도전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하는 일, 아래에서 하는 일 모두를 챙겨주는 자상한 과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밤낮없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아직 미혼인 오지혁 과장의 2016년 목표는 '결혼 끝인 도전' 이라고 한다.



박선희 사원

조용히 일에 몰두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드라이브를 뺑~ 하고 떠나는 박선희 사원은 조용하지만 외위드한 스타일이다. 작년 봄에 결혼하여 아직 새댁 티가 나는 박선희 사원은 과수원집 딸이기도 하여, 수확한 과일을 직원들에게 베풀기도 한다. 또한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에 가서 일손을 거드는 보기 드문 효녀이기도 하다.

도전팀은 이렇듯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도전자들이 모여, 365일 언제나 끊임 없이 도전하는 멋진 부서이다. 이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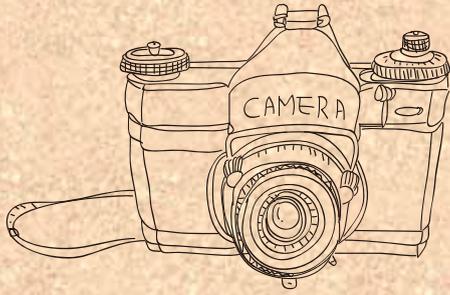


# Pamily

## 2016 올해의 기자상

올해 2016년도에 가장 열심히 취재한 **베스트 기자**를  
 팩컴패밀리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앞으로 1년 동안 마음에 쏙 ~ 드는 기사를 짚하시고  
 기자를 확인 후 **12월에 있을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더 자세한 투표방법은 추후 공지 될 예정이오니  
 앞으로 더 심도깊게 요목조목 구독해주세요!

- 사보 기자 일동 -



# 찰각소리

semii@gopacom.com

재밋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PACOM NEWS

팩컴AAP 품평회



지난 1월 8일 오후5시, 최숙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팩컴AAP(주)의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생산 제품에 대한 품평회가 열렸다. 이날은 예년과 달리 각 부서의 실무공정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 발표를 맡았다. 그 덕분인지, 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생동감 있는 발표가 이어졌다. 부서 발표에 이은 조성길 상무님의 작년 실적 및 성과와 2016년 생산 계획 및 매출목표를 끝으로 품평회는 막을 내렸다. 품평회가 끝난 후 각 부서는 부서별 화식을 즐기며 2016년을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생일자 행사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팩컴 생일자 행사는 16년 1월에도 어김없이 진행되었다. 11일에 진행된 1월 생일자 행사는 김홍규 상무님과 조성길 상무님의 생신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더욱 특별했다. 집 밥보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직원들은 사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도서 선물을 품에 안고 업무로 돌아갔다.



인사발령

지난 2월 1일에 시행된 2월 월례조회에서는 2016년도 인사발령이 있었다. 팩컴AAP의 생산관리부 주명희 대리가 과장으로, 팩컴코리아의 비스탐 김정규 사원, 국내영업부 홍선숙 사원, 창조팀 이운정 사원, 혁신팀 주선영 사원, 전산팀 안병욱 사원, 안산공장 김효정 사원, 양장팀 이채영 사원(8명)이 대리로 승진하였다. 이상 9명은 팩컴의 중간관리자로서 팩컴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인크 신입사원 회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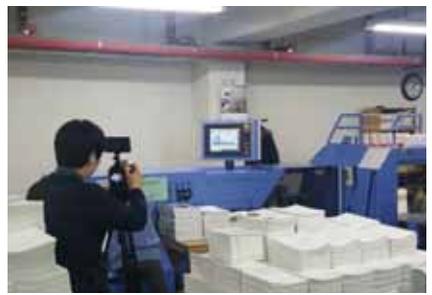
지난 2월 16일, 당사의 거래업체인 대한인크(주)의 신입사원 8명이 군포공장을 방문하였다. 생산관리부 김희수 차장의 안내로 Prepress > 인쇄 > 제본 순으로 공장을 견학하였다. 8명 모두 새내기 신입사원임을 증명하듯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견학에 임했다.



아시아경제TV "클로즈업 기업현장" 촬영

"인쇄중주국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기업 팩컴코리아" 지난 2월 16일, 아시아경제TV의 '클로즈업 기업현장' 촬영팀이 팩컴코리아를 촬영하기 위해 군포공장을 찾았다.

인쇄 중의 명품인쇄, 인쇄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팩컴의 모든것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팀은 이날 오전 오후 내내 업무 현장과 직원들의 인터뷰를 카메라에 담았다.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통해 금속활자, 목판인쇄가 디지털인쇄로 발전하는 과정과, 팩컴이 이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쇄조합 상 표창 수상

2월 19일,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모범근로자 시상식에서 팩컴코리아 열린팀 이승준 과장이 경기인쇄조합상을 수상하였다.



공장 심사 2016년 ICTI 통과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군포공장에서 ICTI공장 인증 심사가 진행되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3일간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생산

**PACOM NEWS**

부서 전 층을 확인함은 물론 직원 인터뷰도 가장 많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평소 직원들이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계 설비 점검 덕분에 심사가 무탈하게 진행되었다고 담당자 이원성 부장은 전한다. 3일간의 심사 결과로 작년과 같은 등급인 CLASS A를 받았다.

**제43회 상공의 날 대한상공회장 표창 수상**

지난 3월 16일, 제43회 상공의날 군포상공회의소 기념식에서 팩컴AAP 정합팀 하상진 대리가 대한상공회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대한인쇄문화협회 모범근로자협회장 표창 수상**

2월 24일, 서울 PJ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인쇄문화협회 제68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팩컴코리아 비상팀의 김지수 과장이 대한인쇄문화협회 모범근로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표창은 인쇄업계에 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게 수여되는 표창이다.



**입사를 축하 합니다**



2월 22일, 박수빈 사원이 정비부의 새 가족이 되었다. 박사원은 같은 연령대 직원들과 모임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박수빈 사원의 입사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보람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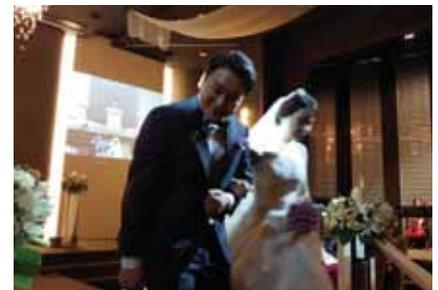
**결혼을 축하 합니다**

2016년에도 어김없이 우리회사의 처녀 총각의 결혼이 시작되었다. 1월 30일 경영기획본부의 윤지는 사원이 그 시작을 알렸고, 남은 상·하반기에도 많은 결혼이 예정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윤지는 사원은 신랑 김수영군과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한 6년째인 올해 결혼에 골인했다. 서울 삼성동 한전웨딩홀에서 진행된 이 예식은 양가 부모님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다음은 2월 27일에 비상팀의 훈남 김영모 사원이 신부 임슬아양과 서울 섬유센터 스카이뷰웨딩홀에서 화촉을 올렸다. 신랑이 하객들을 향해 손을 꼭 뻗으며, 드디어 결혼한다는 신나는 표정을 하고 입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날 예식도 신랑의 기분만큼이나 즐겁게 진행되었다.



**아기 출산을 축하 합니다**

3월 4일, 1월 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생산관리부 김인선 대리가 3.52kg의 한주아 공주를 출산했다. 현재 고향인 부산에서 산후조리중인 김인선 대리와 아이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이원성**

#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책 한 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Book **m**ake

휴가 때 여행 다녀 온 기념으로 사진집을 만들어 볼까, 책장 한 칸에 간직해 온  
내 소설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껏 고민하셨나요? 이제는 실천하세요!  
북메이크가 당신이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머릿 속에만 간직해 온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세요^^